

안타까운 돌연사... 경각성 불러일으켜야

- 심폐소생술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연변 소품 <형님께>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 소품에 나온 심폐소생술 시행 장면 (화면 캡처)

2024년 연길 TV 음력설문예야회에서 <형님께>란 친근한 제목의 소품이 전파를 타며 안방을 사로잡았다. 소품에 김위동, 채용, 최화란 등 연변 조선족 유명 코미디언들이 출연해 탄탄한 연기력은 물론 가족간의 사랑과 배려, 형제간의 각별한 우애를 생생하게 다뤘다.

한편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던 이 소품에 숨겨진 뒤편 이야기도 뒤늦게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얼굴이 잘 알려진 인기 연기자들을 내세워 소품이라는 접근하기 쉬운 매개체를 통해 ‘심폐소생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싶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봐주고 경각성을 가지고 배우 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극본을 썼습니다.”

이 소품의 극본, 연출, 출연을 모두 맡은

김위동씨는 이 소품을 창작하게 된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알고보니 <형님께>란 소품의 창작 배경에는 김위동씨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 주변의 가까운 지인들을 심장마비 돌연사로 떠나보내면서 김위동씨는 큰 슬픔에 빠졌다고 털어놨다. 지난 1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도 김위동씨는 “며칠전에도 지인 한분을 심장마비로 잃었다.”며 울적한 목소리로 말했다.

절친들과의 사별은 김위동씨에게 슬픔을 넘어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큰 슬픔에 빠진 남편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연변 병원 의사)가 “그럼 심폐소생술과 같은 의료 상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내용으로 극본을 쓰면 어떨까요?”는 조언을 주었고 김위동씨는 이를 들었다. 극본을 20여년 수정하면서



▲ 연길 TV 음력설문예야회의 소품 총연출을 맡았던 채용과 뜻을 같이하면서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그는 연변병원 급진내과 전문의를 찾아 심폐소생술에 관한 전문지식을 배우는 한편 인터넷으로도 부지런히 관련 동영상과 자료들을 찾아봤다. 그러면서 그는 심장마비 전조증상

을 알아채고 골든타임내에 적절한 응급 처치와 치료를 받으면 장기 손상을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환자의 심장이 멈추거나 의식을 잃을 경우 심폐소생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료상식 등을 전문가 못지 않게 터득하게 되었다.

연길 TV 음력설문예야회의 소품 총연출을 맡았던 채용과 뜻을 같이하면서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연길 TV 음력설문예야회의 소품 총연출을 맡았던 채용도 극본을 보고 심폐소생술에 관련된 지식은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야 된다는 뜻을 같이하면서 여러번의 조를 끝에 지금의 작품으로 탄생하여 관중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품을 내놓으면서 우리 모두의 바람은 그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아 심폐소생술에 관한 의료상식이 더욱 광범히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점이었습니.”

인터뷰 내내 김위동씨는 일상생활중 필요한 의료상식에 대한 관심과 보급을 수차 언급했다. “그렇다고 거창한 건 아니고 단지 주변인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목숨을 살릴 수도 있는 응급처치라는 점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소품에서는 여러가지 제한성으로 인해 심폐소생술에 관한 내용이 짧게 다뤄졌지만 인터넷을 검색하면 심폐소생술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방법, 주의점 등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었다면서 김위동씨는 여러분들이 ‘관심갖기’를 재차 강조했다.

연변대학예술편역 연구학부 연기학과를 졸업하고 연변연극단, 연변조선족자치주 문화국, 연변가무단 등 예술 분야에서 활약하다가 지금은 개인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힌 김위동씨는 “비록 현재 전문적인 연기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대학교 때 배운 전공을 살려 하임리히법(음식물이나 이물질로 인하여 기도 폐쇄, 질식할 위험이 있을 때 흉부에 강한 압력을 주어 토해 내게 하는 방법) 등과 같이 일상에서 알아두면 필요한 의료상식이나 응급상식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작품들을 창작하여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우리 사회에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 싶다.”며 향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 김가혜기자

50 키로그램 감량 녀배우가 일으킨 열풍



올해 음력설 시즌 박스오피스 승자는 단연 <뜨거운 인생 (热辣滚烫)>이다. 모안(猫眼)의 통계에 따르면 이 영화의 흥행 수익은 33억원을 돌파했다.

치열했던 음력설 기간 박스오피스 왕좌를 거머쥘 수 있었던 데는 이 영화의 감독이자 주연 배우인 가령의 역할이 중요했다. 일본 영화 <백엔의 사랑>을 원작으로 한 이 영화는 한 여성이 자기존중감, 자기애를 회복하는 과정을 담았다. 대학 졸업후 몇년간 백수생활을 이어오던 녀주인공은 직장내 괴롭힘, 남자친구와 절친의 배신, 가족과의 부당산 갈등 등 온갖 풍파를 겪다 복식을 접하게 된다. 습관적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고 상처만 받던 녀주인공은 복식을 통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재건되며 관객에게 쾌감을 선사한다.

실제로 가령은 영화를 위해 20 키로그램을 감량했다가 50 키로그램을 감량했다. 영화 초반부와 후반부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가령의 모습은 온라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등극하며 화제가 되었다.

영화 촬영 기간 다이어트, 복식 훈련, 연출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린 가령의 모습은 관객의 심금을 울렸다.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하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근육 라인을 뽐내며 문을 열고 나가는 모습은 영화의 메시지를 극대화했다.

무엇보다 현실점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다룬 것이 가산점이 되었다. 청년 관객들은 영화를 본 후 극중 대사와 주제음악 가사 속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소셜 미디어에 공유하고 있다.

일부는 “날씬한 녀성만 아름다운가? 세속적인 미의 기준이 또 등장했다.”며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겼다고 비판했지만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의 메시지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건 강에서 시작된다’, ‘자존감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서 온다’는 것에 더 호응하는 분위기이다.

영화가 남긴 여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청년들 사이에서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분투 열풍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실에 발을 붙이고 자신이 세운 계획, 자기계발을 수행하며 나를 지켜내고 내 삶을 사랑하겠다는 움직임이다. / 양이넷

CCTV 다큐멘터리 <보이는 절기> 촬영팀 훈춘서 촬영

2월 29일, 중앙라디오텔레비전방송총국 영화다큐멘터리중심 <보이는 절기> 촬영팀이 훈춘을 찾았다.

<보이는 절기>는 절기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총 25회로 되어있으며 회당 5분씩이다. 이 프로는 중국 자연지리의 시공간적 변화를 접목하여 동식물의 매력적인 계절이야기와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인간의 활동을 서술하고 자연인문학적 관점에서 중국의 리념과 중국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다.

훈춘시에서 촬영하는 동안 촬영팀은 양포 만족향, 하다문화의 깊은 숲속에 들어가 동북호랑이의 맥이, 습성, 성장 공간 등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동북범이 자주 출몰

하는 구간에 원격외선 카메라를 설치하여 야생동물의 멋진 순간을 포착했다.

촬영팀 감독 주우는 훈춘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고 역사문화가 깊으며 관광사업이 발전했다면서 다큐멘터리를 통해 훈춘의 생태적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훈춘과 동북범표범국가공원에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국, 조선, 로씨야 3국 접경지역에 위치한 훈춘은 산천이 아름답고 공기가 좋다. 동북범표범국가공원이 설립된 이래 지역의 생물구성이 다양해지고 각종 야생동물이 빈번하게 출몰하고 있으며 동북범표범의 분포수와 밀도가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다.

/ 두만강신문

‘녀성운치·리녕서법전지예술전’ 연변도서관서



새시대 녀성들의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정신면모를 보여주고 지식과 아름다움에 대한 녀성 서법가들의 가치 추구를 충분히 나타냄과 동시에 대중문화생활을 풍부히 하여 광범한 대중들로 하여금 중화 전통문화의 매력을 느끼도록 하기 위하여 연변도서관에서는 7일, ‘3.8’국제노동녀절에 즈음해 ‘중화민족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중화 우수 전통문화 발양 - 녀성운치·리녕서법전지(剪紙) 예술전’을 개최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엔 전시된, 연변전지협회 주석이며 연변로년서화연구원 고문인 리녕선생의 20여년간의 정품 서법과 전지 작품들은 시대 주제가 뚜렷하고 예술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내용이 풍부하며 습근평 총서기 계렬 연설, 모주석 시사(诗词),

중국곡, 룡등성세, 전통문화, 민간전지 등 작품들을 포함한 120여점에 달한다. 이는 ‘3.8’절을 맞아 녀성들에게 바치는 선물이자 서화애호가들을 위한 정신적 식량이기도 하다.

이날 연변전지협회, 연변서법가협회 회원들도 행사 현장에 와서 시민들과 함께 전지와 글짓기를 진행함과 더불어 전지와 서법 예술에 대한 토론을 이어가면서 행복한 생활에 대한 감수와 함께 중화 전통문화의 매력을 느꼈다. 상호 배우고 경험을 교류하면서 현장 분위기는 활기로 차 넘쳤다.

한편 이번 전시는 3월 22일까지 계속된다. 전시 기간 시민들은 연변도서관을 찾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김가혜기자 / 사진 제공 연변도서관



중앙발레단 발레무극 <홍색랑자군> 공연

중앙발레단 발레무극 <홍색랑자군> 60돐 기념 공연이 2일 해남성 해구시를 첫 역으로 막을 올렸다. 이날 해남성가무극원은 만석이였으며 관중들이 배우와 합창하는 진풍경도 여러번 펼쳐졌다.

/ 신화넷